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읍 신천리 신천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강춘심(여, 1948년생, 성산읍 신천리)

- 줄거리: 도깨비가 있고 귀신을 모셔서 살던 시절에, 자주 나타나던 큰 대문 모양으로 생긴 것을 그순새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.

[제보자] 옛날 어룬덜 말허기는, 저 도체비도 잇고, 옛날엔 구신은 하영 모성 살 때라노 난, 영 길 가당 보면은, 막, 남대문, 동대문 모냥으로, 영, 헤어진, 집이 생겨, 게 민 글로 넘어가민 사름 죽어부는 거.

[조사자] 그것 보고 뭐렌 골아마씸?

[제보자] 그순새.

[조사자] 아, 그순새.

[제보자] 그순새 낫젠 헤그네에 올로 가당 보면은 글로 넘어가면은 사름이 죽는, 그런 말 을 막 우리 들어난다. 우린 안 봐도. 그런 말 어룬덜 자꾸 넘어가당 “그순새 난다, 그순새 난다.”
그렇게 말හ.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들어나난. 우린 그딜 모스왕 베꼈다 못 나 가낫어.

[조사자] 게난 그거 지나강 죽은 사람은 봐 봅디가?

[제보자] 게메, 우리가 안 보니깐 할망덜 그런 말을 헤연.

- 핵심어 : 그순새, 남대문, 동대문, 집, 도체비, 구신, 도깨비